

「노정기」 _ 이육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피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앓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나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포범: 베로 만든 돛.

*짱크: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시로, 화자의 비극적인 자기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쫓기는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지만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반추하고 있다.

- 1연: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온 삶
- 2연: 젊은 날 경험했던 시련과 불안
- 3연: 희망 없이 살아온 치열한 삶
- 4연: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
- 5연: 고단한 삶을 회고하며 느끼는 비극적 자기 인식

✓ 주제 :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애

- ①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에는 ‘암초’와 같은 자연물과 ‘흐릿한 밤’,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단했던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화자가 ‘시궁치’로 비유되어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노정’이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불안과 고통,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정기’라는 제목은, 화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 ④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단한 삶이 화자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이끌려 온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깨어진 뱃조각’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 자기 인식(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⑥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는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오른 것처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THE - 깊은 독해】

* '노정기'는 여행할 길의 경로와 거리를 적은 기록을 말한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 화자가 자신의 목숨을 깨어진 뱃조각으로 비유하고 있다. 자신의 삶이 산산이 깨졌다는 의미 혹은 자신의 목숨이 무가치하다는 의미이다. (혹은 언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삶을 의미한다.) 여기서 '깨어진 뱃조각'은 무용지물의 이미지를 환기하며, 원관념은 '목숨'에 해당한다. 즉, 목숨의 무가치하고 헛됨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 화자는 자신의 목숨이 구질구질한 어촌 마을보다도 엉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교를 통해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 화자의 부서진 삶이 때가 더지되지 못어 있는 듯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삶의 티끌'은 부서진 삶 또는 무가치한 삶을 비유하며 뚜렷한 결과 없이 지나온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포범'은 삶의 티끌을 비유하고 있다.

▶1연: 무가치하고 고통스런 삶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 남들과 달리 화자의 젊은 날은 기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아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화자의 젊은 시절은 숨어 지내는 듯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밀항하는 짱크'는 화자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비유한 것이다. (날선 이국에서 쫓기듯 살아왔던 화자의 젊은 날을 비유했다고 보기도 한다.) '남들'과의 대조가 나타난다.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 소금에 절어 쓰라림을 겪고, 밀물고 썰물에 떠밀려 부풀어 오르는 무기력한 삶이었음을 나타낸다. 즉, 화자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음을 뜻한다.

▶2연: 두렵고 무기력한 젊은 시절

항상 흐릿한 밤 압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 어두운 밤에 압초를 벗어나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인 태풍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늘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화자의 고달픈 삶의 과정이 드러나며, 치열한 투쟁의 삶을 암시한다. 이때 '흐릿한 밤'은 압박한 현실을, '압초'와 '태풍'은 고난과 시련을 뜻한다.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 오래 전에 들어본 듯한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 '산호도'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으로, 이상 세계와 희망의 상징이다. 즉, 산호도를 구경도 못 한다는 것은 화자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이다.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 화자가 처한 현실('그곳')은 남십자성도 비치지 않은, 즉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때 '남십자성'은 남십자리에 있는 십자형의 네 개의 별로, 이상 세계와 희망의 상징이다. 앞에 나온 '산호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3연: 고난의 연속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로하며 화자의 고통스런 심신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 '지평선'은 화자의 지향점을 뜻한다. 즉, 마음속에 바라던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시궁창이 마치 열대 식물처럼 화자의 발목을 에워쌌음을 의미한다. 이때 '시궁치'는 고통스런 현실을 상징한다.

▶4연: 고통에 빠진 삶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 화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내려온 거미가 나온다. 이 '거미'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아온 무기력한 존재를 뜻하며, 화자를 비유하고 있다.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 화자는 자신이 삭아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온 것처럼, 주체적이지 못하고 무기력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밀려온', '붙어온' 등의 시어는 화자의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머-나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화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머-나 항구의 노정'은 삶의 과정을 함해에 빗대어 나타낸 말이다.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라는 말을 통해 이 글이 회고적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5연: 지난 삶에 대한 성찰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음 [성찰하는 이]
- 상황 : 고난 속에서 절망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역정을 함해하는 배에 빗대어 회고하고 있음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삶을 성찰함]
- 정서·태도 : 불안과 초조, 고통과 절망, 성찰적, 회고적

[연 관 - 기 출 문 제]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축죽한 어촌보담 어설피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 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썰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 -

* 썰크: 정크(Junk).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 노정: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나)

[A]

<부패해가는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를
나는 발효시키려 한다>

[B]

<나는 충분히 썩으면서 살아왔다
묵은 관료들은 숙변을 내게 들이부었고
나는 낮은 자로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C]

<수렁 바닥에서 멍든 얼굴이 썩고 있을 때나
흐린 물 위로 떠오를 때에도
나는 침묵했고
그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D]

<나는 한때 이미 죽었거나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든 자로서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을 뿐이다
문제는 스스로 마음에 뚜껑을 덮고 오물을 거부할수록
오물들이 더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나는 그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E]

<물왕저수지라는 팻말이 내 마음의 한 변두리에 꽃혀 있다

나는 그 저수지를 본 적이 없다
긴 가문 날 흙먼지투성이 버스 유리창을 통해
물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팻말을 얼핏 보았을 뿐이다>

그 저수지에
물의 법이 물왕의 도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 저수지에 왕골을 헤치며 다니는 물뱀들이
춤처럼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흰 갈대꽃이 피고

[F]

<잉어들은 찹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
발효하는 숨결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내 마음에도 전해주기 바란다>

- 최승호, 「발효」 -

(다)

포구의 사람 중에 전복을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물기를,

“당신이 하는 일의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천한 일이온데, 어찌 물을 일입니까? 대저 바다는 죽음의 땅이고 전복은 반드시 바다 깊은 곳에 있습

니다. 또 그물이 아닌 갈고리를 들어야 잡을 수 있으며, 반드시 바닥에까지 잠겨야 하며, 숨을 멈추고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찾기를 다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작살로 빠르게 찔러야 이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깐이라도 느리게 하면 전복이 칼날을 물어 비록 힘을 다하더라도 칼을 뺄 수도 없으며, 전복은 꿈쩍도 하지 않아 서로 버티다가 시간이 늦으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사람을 잘 무는 나뽀고기들도 많으며, 바다 밑은 또 매우 차가워 비록 무더위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항상 추워서 오들오들 떠니 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이 십여 세가 넘으면 서 얇은 데서 익히다가 조금씩 익혀 깊은 데로 갑니다. 이십 세에 이르러서야 전복 잡이는 가능하며, 사십이 넘으면 그만 둡니다. 또 잠수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에 있으니 머리털이 타고 마르며, 그 살갗은 거칠고 얼룩덜룩하며, 일어나고 기거하는 모습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편안하지도 다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 일의 괴롭고 천함이 이와 같으며,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라도 들지 않겠는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힘쓰지 못하는 것인가?”

하니, 그 잠수부가 입을 딱 벌리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와 상업뿐입니다. 농부도 가뭄이나 장마에 굶주리고, 상인도 남과 북으로 뛰어다녀 그 괴로움이 나와 더불어 같을 것입니다. 만약 군자의 일인 벼슬을 할 것 같으면 편히 앉아서 녹을 먹고, 수레에 올라앉으면 따르는 무리가 있고, 금빛 붉은 빛에 아름답게 꾸민 관이 우뚝 높고, 조정에 들어가면 부(府)나 성(省)을 받들고 지방으로 나아가도 주(州)나 부(部)에 임하니, 이것은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라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찍이 들으니, 아침이면 국록을 먹으나 저녁이면 책망을 당하니, 어제는 한양 땅 부성(府省)에 있으나 지금은 좌천되어 영해(領海)에 있습니다.

(중략)

저 농사와 장사도 어려우니, 참으로 반드시 이 일을 버리고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과 내 힘으로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며,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물며 안으로 막히고 밖으로 죄에 걸려 죽어 가는 것과 때를 기다려 서로 힘을 합하여 물에 빠지는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수면에 나타나니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내가 또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을에서 보건데, 우리 무리들은 그 즐거움에 항상 편안하며, 벼슬하는 사람들이 꾸짖으며 와서 몸을 묶더라도 그 사람 또한 그 하나일 뿐이니, 일에 있어 어느 것이 위태롭고 어느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별을 했을 것이니 어찌 그대의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에 나보고 도리어 이 일을 버리라고 깨우쳐 주니, 슬쁩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땀에 젖고 놀라서 입이 벌어져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오호라, 옛사람이 벼슬길을 바다에 비유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더니, 지금 잠수부의 말로써 시험하니 벼슬길의 위태로움이 바다보다도 심하구나. 그러므로 그 말을 기록하여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이로 인하여 훗날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한다.

- 김진규, 「물인설(沒人窟)」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청각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2. <보기>를 활용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에서는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화자의 삶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있다. (가)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 안식을 소망했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며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인식하고 순환하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썰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생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발목을 오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겠군.

3.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타인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이전과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나’와 (다)의 ‘잠수부’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타인의 외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나’는 타인이 겪을 일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나’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다)의 ‘잠수부’는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4.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를 [B]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지속되고 있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타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설(設)의 표현 방법 중에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물인설」의 글쓴이는 대화 상대가 갖고 있는 직업적 고충과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게 되고, 대화 상대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을 드러낸다.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에서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군.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 서해를 밀항하는 썰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 남십자성(南十字星)이 비춰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여 찼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ㄴ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

* 포범: 베로 만든 돛.

* 썰크: 화물 운송용 선박.

*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한 도랑창.

(나)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편하게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 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먹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다양한 색채어를 구사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자기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7. (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오래도록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염려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 ② ㉡ : 쫓기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한다.
- ④ ㉣ :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맞이하고자 소망하던 삶을 나타낸다.
- ⑤ ㉤ : 삶을 구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에는 시인의 자기 응시를 통한 자기 인식이 드러난다. 삶의 자취와 내면의 심연을 응시함으로써 현실의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존적 자기를 깨닫는 것이다. (가)는 항일 투쟁을 실천했던 시인의 경험을 담아 삶의 고통을, (나)는 삶의 목표나 신념과는 괴리되어 초라함을 느끼는 인간의 고뇌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 :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주체적이지 못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 :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삶의 자취를 돌아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성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 : ‘구두에 질편하게 오줌을 싸 놓은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한 것은 ‘진실로 사랑하기’를 하지 못하고 웅졸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 :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윤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린 것은 ‘인생의 순례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와 괴리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 :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는 것은 ‘생명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이겨 내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③

- ③ (나)는 '이 땅에서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에서, (다)는 '그러므로 사람은 ~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잠수부에게 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정답 SCAN] ④

- ④ (나)에서 '물뱀들'이 살아있길 바라는 '그 저수지'는 화자가 물이 순환하기를 기대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가)에서 '발목을 모여'싼 '시궁치'는 화자가 꿈꾸던 안식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우고 '산호도는 구경도 못 하는' 것은 화자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가)에서 '목숨'이 '깨어진 배 조각'처럼 흩어지고 '내 꿈'이 '밀항하는 찌크와 같'다는 것은 흘러가는 배의 노정에 화자의 삶을 관련지어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③ (나)에서 '마음'에 덮은 '뚜껑이 성긴 그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⑤ (가)에서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온 것은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에서 '물과 진흙의 거대한 반죽'에서 '갈대꽃'이 피길 바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3.

[정답 SCAN] ①

- ① (가)는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서 남들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 (다)는 '지극한 즐거움과 영화로움에 나아감에 견주어 보면 ~ 또 내 일을 다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 묻는 것에서 벼슬하는 사람과는 다른 처지에 대한 '잠수부'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정답 SCAN] ④

- ④ [D]에서 '독약 먹이는 세월'에 '병든 자'로 살아온 원인은 [E]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A]에서 '마음 안의 거대한 저수지'가 부패해 가는 이유는 [B]에서 '나'가 '묵은 관료들'이 '숙변'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욕'을 받아들인 것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B]에서 '치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상황은 [C]에서 '나'가 '침묵'하고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C]에서 '침묵'하고 '슬픔'을 받아들인 행위는 [D]에서 '나'가 '독약 먹이는 세월'에 쓸개가 '병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E]에서 '본 적이 없다'는 '물왕저수지'에 대한 상상은 [F]에서 '잉어들은 찹찹거리고 물오리떼는 날아올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SCAN] ④

- ④ 글쓴이는 '일을 택함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을 뿐 '벼슬길'에 대한 '옛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나쁜 고기들'이 많고 '바다 밑'이 매우 차갑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라는 직업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관청'에 전복을 '바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겪는 제도 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천한 일 중에 욕됨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통해 잠수부가 지닌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그 말을 기록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를 탐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리려는 글쓴이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정답 SCAN] ③

- ③ (나)는 ‘견디지 못하는가’를 반복하여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와 (나) 모두, 다양한 색채어를 구사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와 (나)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가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7.

[정답 SCAN] ①

- ① 화자는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며 ‘쫓기는 마음 지친 몸’으로 살았다. ㉠은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나온 삶의 어두운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염려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② ㉠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쫓기는 마음 지친 몸’과 조음하면서 화자가 쫓기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은 ‘흐릿한 밤’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에게는 삶의 희망이나 긍정적 지표가 없었던 것이다.
- ④ ㉢은 ‘서해를 밀항하는 찡크’와 같았던 화자가 고통과 불안 속에서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발목을 오여’ 싸며 화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화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정답 SCAN] ⑤

- ⑤ (나)에서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 가치관과 괴리되어 강아지에게 소리를 치고 구두를 내던지는 옹졸한 자신에 대한 슬픔, 자괴감을 강조한 것이다. ‘생명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이겨 내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다 삭아 빠진 소리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과거 자신이 ‘밀려’오고 ‘붙어’ 온 존재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와 같이 무력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자신과 현재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의 자신을 두루 성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구두에 질편하게 오줌을 싸 놓은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한 것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린 것은 ‘인생의 순례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와 괴리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